

진흥회동정

1996年度 定期總會 開催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2월 15일 한국종합 전시장 3층 소회의실에서 회원업체 대표 120여명과 정부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9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95년도에 진흥회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하고 '95년도 수지 결산승인(안)과 비상근 임원 해임 및 선임(안), 정관 개정(안), '96년도 업무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李喜鍾 회장 등 비상근 임원진에 대한 선임이 있었는데 회장에는 현李喜鍾 회장(LG産電 부회장)이 제3

대 회장으로 재선된 것을 비롯 대부분의 임원진이 재선임되고 (주)광명기전 張淳明 회장 등 8명의 임원을 신규로 선임하였다.

한편, 제3대 회장에 재선임된李喜鍾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기업계에는 높은 덕망과 능력을 겸비하신 사장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책을 맡겨준 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거울삼아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진흥회 위상정립과 업계의 권익증진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회원사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任 員 名 單〉

職 位	業 體 名	姓 名	備 考
會 長	L G 産 電 (株)	李 喜 鍾	연 임
副 會 長	L G 電 線 (株)	李 權 熉	연 임
"	大 韓 電 線 (株)	俞 彩 濤	"
"	壽 永 電 機 企 業 (株)	裴 壽 億	"
"	利 川 電 機 工 業 (株)	張 昌 世	"
"	日 進 電 機 工 業 (株)	金 仲 伸	"
"	現 代 重 工 業 (株)	劉 在 卓	"
"	曉 星 重 工 業 (株)	柳 烈 燦	"
"	(株) 光 明 電 機	金 榮 澤	"
"	(株) 光 明 機 電	張 淳 明	신규선임
理 事	啓 洋 電 機 (株)	李 相 翊	연 임
"	東 美 電 機 工 業 (株)	李 斗 錫	"
"	雙 龍 重 工 業 (株)	金 基 鎬	"
"	鮮 都 電 機 (株)	全 浩 英	"
"	新 亞 電 氣 工 業 (株)	趙 俊 吉	"
"	新 韓 電 機 工 業 (株)	朴 相 鏞	"
"	中 原 電 機 工 業 (株)	李 寬 鏞	"
"	國 際 電 機 (株)	金 俊 哲	"
"	朝 興 電 機 産 業 (株)	崔 伯 奎	"
"	(株) 建 華 商 事	鄭 友 慶	신규선임
"	(株) 東 南 物 産	李 炳 均	"
"	東 進 電 機 (株)	李 壽 台	"
"	朝 一 盛 業 電 機 (株)	金 榮 成	"
"	(株) 寶 眞 光	金 宇 光	"
"	寶 國 電 機 工 業 (株)	金 鍾 寶	"
監 事	國 際 電 線 (株)	裴 恩 出	연 임
"	서 亨 電 機 (株)	李 相 鎬	"

## ‘96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참가 쇄도

국내의 중전기기류를 비교 전시하여 국제간 기술교류를 촉진하고 수출확대의 장으로 활용키 위해 격년제로 열리는 「'96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 개최가 임박하면서 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고조되고 있다.

오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KOEX 별관에서 개최되는 「'96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에 이미 64개사가 신청을 완료, 제1회 전시회 규모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시회 주관기관인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96. 3. 15 현재 국내업체 52개사, 외국업체 7개국 12개업체가 신청을 해 왔으며 신청 마감일이 4월

10일로 임박함에 따라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업체에서도 참가문의 및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 명실상부한 국제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에는 부대 행사로서 「제2회 전기신기술 발표회」를 동시에 개최할 계획도 있어 최근 개발한 신기술 및 해외 전기공업 시장동향등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는 점이다.

한편, '94년도에 개최된 제1회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에는 총 91개사의 국내외 중견업체들이 대거 참여, 활발한 상담활동을 벌이는 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日 중부전력 구매담당 유력인사 초청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대일지역 수출선 확보를 위한 전력기자재 수출 가능성 타진과 우리 업계의 기술능력 소개 및 일본의 반응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일전력 기자재 수출촉진단」을 파견, 현지 전력회사와 수출·구매 상담 등을 전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진흥회에서는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전력기자재 수출 가능성이 가장 큰 일본의 중부전력(주) 자재부장 등 자재조달 관련 유력인사를 초청, 국산 중전기 제품에 대한 본격 홍보와 일본 전력회사와

의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

이번 내방하는 초청 인사들은 오는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머물면서 국내 주요 중전기업체의 생산체계 및 제품출하 과정을 견학하게 되며 이 기간 중 통상산업부와 한국전기연구소 등 관련기관도 방문, 우리나라 전기공업 현황 및 중전기 시험설비와 시험과정 등도 파악하게 된다.

한편, 진흥회에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대일 지역 수출에 관심이 높은 업체 및 가능업체를 선정코자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 1996年度 第1次 理事會 開催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지난 1월 30일 무역회관 무역클럽에서 재적 임원 19명 중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1996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진흥회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95년도 수지 결산(안),

'96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 정관 및 규정 개정(안)을 심의·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또한, 이번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비상근 임원에 대한 선임(안)을 총회에 상정기로 의결하였다.